

소규모 가공·농촌체험 경영체 판로확대

농진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기반 별도의 누리집 통해 농산물 등 소개 내달 10일까지 누리집에서 상품 구매한 소비자 위한 참여 이벤트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판로 확대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공·농촌체험 경영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기획 판매)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일부터 국가농업기술포털 '농사로'를 기반으로 만든 별도의 누리집 (<https://nongsaro.go.kr/portal/farmStore>)을 통해 농촌교육농장 등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 50종을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해 농촌진흥청 페이스북 등 공식 SNS(누리소통망)에서 참여 이벤트(행사를)를 진행한다.

한편 3월 말부터 4월 한 달간 네이버 쇼핑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우수 경영체 190개소의 제품을 선보이는 '농특산물 오늘 뭐 먹지?' 기획전이 열린다. 이번에 추진하는 온라인 마케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

품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편리한 구매를 돕기 위해 마련한 착한쇼핑 기획전이다. 또한 방문 및 체험객 급감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 사업장의 지원을 위해 운영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 이명숙 과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각 지역의 신선하고 우수한 상품이 널리 알려지고 활발한 구매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공·농업 경영체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군산시지부, 군산농협, 농촌현장지원단은 25일 군산시 개정면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 어르신에게 방문해 노후 벽지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노후화된 어르신택을 새로 고쳐요'

농협 군산시지부 등 돌봄 대상 노인 주거환경 개선

농협군산시지부(지부장 조인갑), 군산농협(조합장 박형기), 농촌현장지원단은 25일 군산시 개정면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 어르신에게 방문해 노후 벽지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주택 노후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센터에서 상담·접수해 현장지원단 실사를 통해서 농업인들과 농촌현장지원단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군산농협 박형기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5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코로나19 피해 청과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과일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청과물시장 활성화 위해

전북은행 '사랑의 과일 나눔' ... 도내 아동복지시설에 송천동 청과물시장서 구입한 200만원 상당 과일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5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코로나19 피해 청과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과일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라북도협회 최운자 회장을 비롯한 도내 지역아동센터장 10여명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축된 청과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외된 아동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도내 지역아동센터 40곳에 송천동 청과물시장에서 구입한 200만원 상당의 과일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과 소외된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향토은행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성금 전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독거노인 생필품 전달', '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윤상 기자

'영세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위해 써주세요'

정보산업협동조합, 중기 사랑나눔재단에 성금 기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사진)은 25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200만원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영래)에 기부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1981년에 설립되어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공동구매/판매, 판로 및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 정보화사업의 발전에 노력해 온 단체다. 이번 성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사가 심심일만 정성을 모았으며, 정보산업 업계는 매년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 500만원씩 정기 기부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300만원을 기부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조합원사들이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뜻을 모아 기부를 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업 부담 '완화' 사회적 책임 '강화'

조달청, 내달부터 시행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 제출 부담도 없었다. 한편,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외에 해당 가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했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